



2대리구 임고성당 | 그림_서원만 베르나르도

2022 + 13 BERNARD

대구주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사순 제4주일 2022. 03. 27. (다해) 제2314호

제1독서 여호 5,9ㄱ-10-12 **화답송**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제2독서** 2코린 5,17-21 **복음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루카 15,1-3.11-32 **영성체송** 아들이, 네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기뻐하야라.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너무나 너그러우신 분



성북본당 주임 | 이강재 요셉 신부

아직 건강하신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달라고요? 유산은 원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유산 이야기를 꺼내셨으면 몰라도,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께 차마 입에 올리기도 죄송스러운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건 정말 아닌 거 같습니다. 저도 그런 아들에게는 별로 유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설사 유산을 물려주더라도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좋은 곳에 쓸 줄 모르고, 자식에게도 그 재산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면 더더욱 물려주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 말씀은 자식이 아주 잘못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께 돌아오면 아버지는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너무나 너그러우신 분’이시라는 걸 강조하신 내용 같습니다. 아무리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람 사는 곳에서는 부자관계라 하더라도 엄연히 상식과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미리 받은 유산’을 날려먹은 아들을 아버지는 기꺼이 받아 주십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쉽게 용서해 주면 교육상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반복될 수도 있고,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약점 삼아 더 나쁜 짓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는 아닐지 몰라도 ‘적절히’ 훈육의 과정을 거쳐 아들을 받아주어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마저도 하지 않고 아들을 받아주신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에 감동할 뿐입니다.

아들이 타지에서 굶어죽기 싫어서 정신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진정한 회개나 뉘우침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백번 양보해서 회개의 시작이나 계기 정도로는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잘못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도 없었던 아들을 받아주신 한없이 너그러우신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부모로서 자식을 못 만나다는 것 만큼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을까요?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성당에 못 가겠다.’는 말씀을 하신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진심일 수도, 농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어느 쪽이든 믿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서는 패륜에 가까운 죄를 지었던 아들이 제 발로 찾아와도 ‘달려가 아들의 목을 꺼내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당에 나가기 싫다거나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게 더 솔직한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어설프게 겸손한 사람을 흉내 내는 말이나, 하느님께서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분으로 취급하는 말은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니까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냥 한없이 너그러우신 아버지 품에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솔직하고 인간적이고 신앙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필문**

에스테르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

에스테르는 페르시아 제국에 끌려간 유대인으로 페르시아 임금의 왕비까지 된 여인이다. 고아였으나 그녀의 사촌오빠 모르도카이에 의해 길러진 이유로 왕비가 된 이후에도 에스테르 곁에는 모르도카이가 늘 함께했다.

에스테르의 이야기는 페르시아 궁궐에서 일하던 모르도카이와 재상의 자리에까지 오른 하만과의 갈등에서 시작한다(에스 3,5 참조). 모르도카이는 하만을 인정하지 않아 인사조차 거부했고 그런 모르도카이를 하만은 불쾌하게 생각했다. 하만의 불쾌함은 유다 민족 전체를 거누게 되고, 임금에게 페르시아의 법과 문화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배타적 자세를 고발케했고, 유대인들의 절멸을 향한 분노로 변질된다. 임금은 하만의 원의에 따라 칙령을 내려 유대인들을 없애도록 허락하고 만다.

모르도카이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만물의 주님, 주님이신 당신께 맞설 자 없습니다.”... “저의 주님이신 당신 말고는 아무에게도 무릎 꿇고 절하지 않으오리니 제가 이렇게 함은 교만 때문이 아닙니다.”(에스 4,17(4,7)) 기도 형식으로 남겨진 모르도카이의 속내는 아주 투박하고 무모한 논리를 품고 있다. 자신이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은 개인적 자존심을 주님 외엔 무릎 꿇지 않겠다는 배타적 믿음으로 둔갑시키는 투박함. 현대의 독자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도 좋으리라. 자신에게 불편한 것을 공동체의 심각한 위기로 둔갑시켜 문제를 확대한 경솔함을 어쩔텐가, ... 무릎 꿇고 인사하는 게 뭐가 어렵나, ... 에스테르가 왕비가 되는 건 괜찮고, 인사하는 건 그토록 하느님께 불충한 일인가.

모르도카이는 에스테르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녀만이 유다 민족을 구할 수 있음을, 에스테르가 민족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기어코 주지시키면서. 에스테르는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한다. “당신 손으로 저희를 구하

시고 주님, 당신밖에 없는 외로운 저를 도우소서.”(에스 4,17(25)). 에스테르는 임금에게도 같은 청을 올린다. “아, 임금님, 제가 임금님의 눈에 들고 또한 임금님도 좋으시다면, 제 목숨을 살려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소청입니다. 아울러서 제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에스 7,3). 에스테르에게 호의적인 임금은 유다 민족을 없애지 못하게 했고, 하만을 처형시킨다. 참 거칠고 투박한 이야기다. 미움과 대립, 그리고 죽음이 뒤얽힌 잔인한 이야기다.

에스테르기가 작성된 시기는 페르시아 제국이 아니라 기원전 2세기 셀류코스 왕조 안티오코스 4세 때로 추정된다. 유다 백성의 문화와 종교를 억압했던 안티오코스 4세의 통치 방식에 저항하는 하나의 교훈적 역사서로 에스테르기는 작동한다. 이를테면 가냘픈 여인을 통해 하느님은 유다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강변함으로써 억압받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고자 했던 것이 에스테르기다.

그럼에도 찼찼한 교훈이다. 민족을 위해, 가문을 위해, 제 자식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한 어머니들이 떠올라서다. 남성들의 철없는 자존심 싸움을 민족 대 민족의 거대담론으로 비틀어 놓고 거기다 힘없는 여성이 대립의 이야기를 해소했다는 서사는 얼마나 잔혹하고 천박한 남성 위주의 의식을 품고 있는가. 어머니가 지니는 이른바 ‘모성애’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남성이란 집단이 회피하는 곳은일, 천한 일, 비겁한 일을 혼자 감내해야 한다는 ‘희생양 메커니즘’의 다른 말마디일 뿐이 아닌가. 이대남, 페미충이란 단어로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 하는 남성 정치모리배들이 들끓는 내나라 대한민국 안에서 여전히 여성들은 남성들의 천박하고 투박한 자존심 싸움의 피해자로 남아 있는 건 아닌지. 에스테르기는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애잔하고 씩씩한 뒷맛을 남긴다. **필문**

아버지의 그림자

소설 형식으로 재구성한 요셉 성인 이야기

하느님의 뜻에 순응하는 믿는 이의 모습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폴란드 작가 얀 도브라친스키(J. Dobraczyński)는 저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통하여 소설 형태로 요셉 성인의 삶을 전하였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요셉은 하느님 아버지의 지상의 그림자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지켜보고 보호하며 예수님께서 혼자 길을 가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책은 성경에서 근원을 찾고 외경과 방대한 전승 자료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요셉 성인은 ‘믿는 이’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그는 예측할 수 없는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 갑자기 서게 되는 고뇌의 모습을 그립니다. 이를 통해 하느님 뜻에 순응하는 모습, 성숙해 가는 신앙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과 복잡하고 서로 용납되지 않는 사회적-정치적-종교적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신앙의 힘든 여정 또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혹이나 권력의 어두운 움직임, 그룹의 편파성에 휩쓸려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는, 믿는 이들의 본모습을 보여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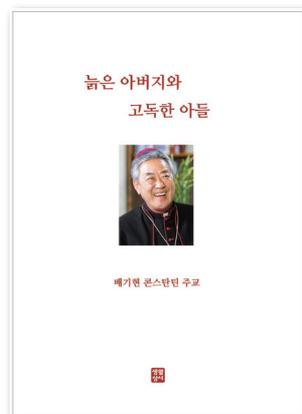
얀 도브라친스키 지음 | 김미숙 옮김 | 592면 | 20,000원 | 도서출판 벽난로

늙은 아버지와 고독한 아들

배기현 주교의 유쾌한 참회록, 자전적 에세이

유머와 재치에 담긴 진솔한 자기 고백서

성직 지망자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기상천외한 삶을 살았던 마산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의 자전적 에세이와 가르침 모음집이 출간되었습니다. 마산 교구 총대리 시절 저자는 그동안 문제를 일으키며 살았던 지난날들을 의식의 흐름에 따라 되돌아보며 1년간 매주 교구 주보 『가톨릭 마산』에 자기 고백적 신앙 에세이를 기고했는데 유머와 재치로 적어내린 37편의 글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주교로서 마음을 담아 정성껏 쓴 교서와 담화문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부모와 스승 이야기들이 더해져 있습니다. 배기현 주교였기에 가능했던 여러 재미난 일화들은 읽는 이에게 웃음을 선사하며, 시골 본당에서의 파스하면서 생경한 사목 이야기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곧 영성(靈性 spirituality)’임을 깨닫게 해 줍니다.



배기현 지음 | 192면 | 13,000원 | 생활성서

드망즈 주교의 일기

“주교님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 주교 주교서품(1911. 6. 11 서울)

4월 23일, 즉 사백주일(卸白主日)날, 조선 교구장인 뮈텔(Mutel, 閔德孝) 주교가 1906년 창간 때부터 내가 경영해 온 교구의 신문인 <경향신문>(京鄉新聞)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때는 오전 8시였는데, 나는 막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사진틀을 짜려고 하던 중이었다.

주교님은 “주교님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라고 말하며 나를 포옹하고, 손에 들고 있던 전보를 나에게 건네주었는데, 그것은 그 전날 파리에 서 보낸 것으로 “드망즈, 플뢰리(Fleury) 주교”란 내용이였다.

성신강림주일 다음 월요일, 즉 6월 5일, 나는 1900년부터 1906년까지 6년 동안 교수로 있었던 용산신학교에서 피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성삼주일인 동시에 성 발라바 침례날이기도 한 6월 11일 일요일, 나는 밀로(Milo) 주교이며 지금까지 조선 교구장이었고, 앞으로는 서울 교구장인 구스타브 뮈텔 주교님에 의해 주교로 성성 되었다. 두 주교가 보좌했는데, 하나는 라파니(Raphanie)의 명의주교이고 북만주 교구장인 라루이에(Lalouyer) 주교이며, 또 하나는 젤라(Zela)의 명의주교이고 남만주 교구장인 술레(Choulet) 주교였다. 한국을 두 교구로 분할하고, 아드라스(Adras)의 명의주교요 초대 대구교구장으로 임명하는 교황의 칙서들은 비오 10세 성하 재위 8년인 1911년 4월 8일자였고, 메리 델 발(Merry del Val) 추기경의 서명이 함께 있었다.

6월 15일, 나는 용산신학교에서 첫 주교 미사를 집전했고, 성체거동을 주관 했다.

6월 24일 토요일, 용산에서 나의 첫 번째 서품식을 주례했는데, 서품자들은 모두 나의 제자들이었다.

드망즈 주교의 일기(Journal personnel de Mgr.F.Demange)

대구대교구 초대 교구장이신 드망즈 주교님께서 1911년 4월 교구장 임명부터 선종하기 몇 개월 전인 1937년 12월까지 쓴 일기입니다. 26년의 기록을 담고 있는 이 일기는 프랑스 원문의 총 면수만 1307쪽에 달하고 있습니다. 드망즈 주교님은 1936년 12월 31일, 그동안의 일기를 5년씩 한 권으로 묶어 5권으로 분류하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다. 요는 하느님이 허락하는 날까지 나의 길을 계속하는 것이다.”

출처 : 가톨릭신문사 창간 60주년 기념자료집 『드망즈 주교 일기』(1987)

52. 사랑의 결실 ④

확대된 결실

훈인한 많은 부부들이 자녀를 가지지 못합니다.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이며, 감정이 없는 아이에게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입양과 위탁 부모 되기를 결정할 때에 언제나 아이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 열린 마음으로 연대를 맺는 가정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이들과 친교를 쌓습니다. (그리하여) 가정은 그들의 증언과 이야기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말해 주고, 신앙을 전하며, 하느님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고, 복음과 그 복음이 제안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기쁨』 178-184항)



화요일 오후반

14:00~16:00
개강: 5.10(화)

목요일 오전반

10:00~12:00
개강: 5.12(목)

※ 2023년 3월 수료 예정

강사: 정 이사악 수녀 / 여한준 롯젤로 신부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회의실

신청비: 7만원

모집인원: 선착순 70명

신청 및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담당, 053)250-3082

※ 방역지침에 따라 신청 및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경통독 40주간 2기 모집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하루의 마무리로 내가 남긴 생태발자국 계산하며 지구를 위해 기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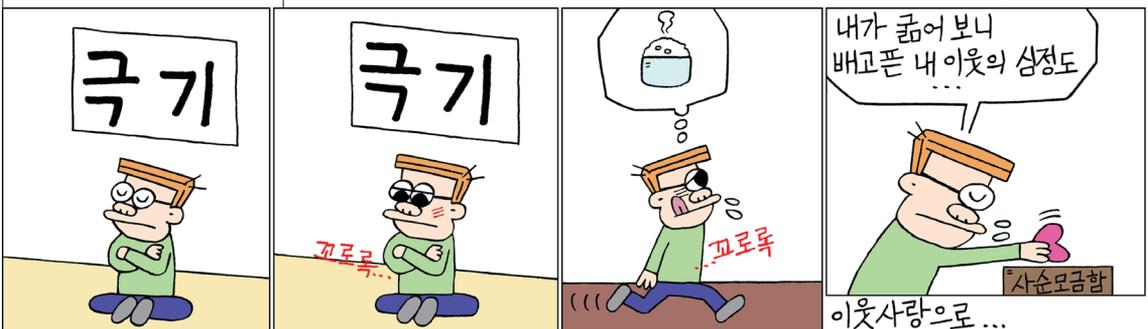
ex) 물 받아서 세수(0.4kg), 대중교통 이용(1주일 1회, 39.12kg), 장바구니 사용(0.21kg) 등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63호 정답

- 가브리엘, 미카엘
- 유다에 있는 하바쿵예언자, 주 다니엘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위대하십니다. 당신 말고 다른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 이 나라가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마구 창녀 짓을 하기 때문, 고메르
- 신의, 하느님을 아는 예지

나의 희생이 바로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1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3월 28일(월) 11:00 계산성당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3월 28일(월) 11:00 도량성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3월 28일(월) 11:00 범어성당	3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4월 2일(토) 10:00 월성성당

수도회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4.3(일) 10:00

장소: 서울본부(동소문로)

대상: 만 19세~35세

문의: korvocation@columban.or.kr

예수고난봉쇄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수시

장소: 청주 예수고난봉쇄수녀원

문의: (043)295-5940

cumjesupassio@gmail.com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낙태 후 화해 피정

기간: 4.1(금)~3(일) / 회비무료

장소: 명상의 집(서울 우이동)

문의: 고 마르타 수녀, (010)6637-1366

바오로딸 청년하루 피정

일시: 4.2(토) 13:00~17:00

장소: 동성로 바오로딸서원

대상: 하느님 안에서 머물고 싶은

청년 누구나

문의: 김베로니카 수녀, (010)2507-1610

도미니코회봉쇄수도원 성삼일 피정

일자: 4.14(오후)~17(오전)

대상: 만35세 미만 여성

문의: (010)6561-2906 / (043)651-2906

http://www.dominicocorea.com

교구 외 | 기타 알림

사제와 함께하는 문경성지순례

일시: 매주 (수) 11:00~17:00

일정: 마원성지, 여우목성지, 진안리

성지, 한실성지 (미사, 점심제공)

문의: (010)9944-0145

(주일도 가능, 사전 연락요망)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칠곡가톨릭병원 전문의 초빙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에서 전문의를 초빙합니다.

초빙과목: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문의: 320-2120 / (010)7372-0076

천주성삼병원 간호사 채용

위치: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

문의: 간호부, 790-0867(신매동)

http://www.sungsam21.com

전인병원 조리원 채용

장소: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77

자격: 경력무관, 해당직 유형험자 우대

문의: 670-5881



사랑의 장강이 되다

이문희 지음 | 200면 | 12,000원 | 앞산밀북카페

故 이문희 바울로 대주교 유고집 출시 판매

대구대교구 제8대 교구장이셨던 이문희 바울로 대주교님의 선종 1주기를 맞아 생전에 많은 사랑을 받은 시와 미발표작, 일기와 강론, 에세이 등을 묶은 유고집이 나왔습니다.

구입문의 : 교구 문화홍보국, 053)250-3048~9



가톨릭피부과의원
Catholic Dermatology Clinic

Since 1963

58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 신축건물 이전 및 레이저 전문 진료과장 초빙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대표전화 ☎ 053) 320-2000

월간 빛 정기구독

교구에서 발행하는 종합월간지 빛 정기구독을 통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나보세요!

▶ 본당 구독: 정가 1,500원, 1년 18,000원
▶ 우편 구독: 정가 1,800원, 1년 21,600원 (우편료 300원 포함)
▶ 구독 문의: 053)250-3158, 252-5392



보건복지부 인공의료기관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건강검진

전인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입구 1688-7667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전달출(토마스데아퀴노) 신부
2010년 3월 29일
- 조차성(바오로) 신부
1929년 4월 1일
- 서영민(알렉산델) 신부
2014년 4월 2일
- 황주철(로제리오) 신부
2013년 4월 2일

교구 | 대리구 알림

월배성당 부활맞이 9일기도 특강

일시: 3.28~4.7 / 저녁 미사(19:30) 후
장소: 월배성당
문의: 636-1302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성주간, 부활 시편 연수

일시: 4.3(일) 14:00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스테인드글라스 취미반 수강생 모집

개강: 4.1~6.17(매주 금, 3개월 과정)
장소: 대구가톨릭대 DCU장식미술센터
비용: 45만원(기본도구, 작품도안 제공)
문의: 센터장 조현수, (010)7641-6922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수강생 모집

서양화, 오카리나, 칼림바, 발성법,

난타, 고전무용, 장구, 사군자문인화, 캘리그래피, 우쿨렐레, 연필초상화, 제대꽃꽂이, 사범꽃꽂이, 신앙여정, 정리수납전문가 / 신청: 254-6115

직업체험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바리스타, 요리, 목공, 플라워 네일, 베이킹, 반려견교육
대상: 14~24세 청소년 누구나
수강료: 전액무료 / 상시모집
문의: 대구청소년창업센터, 474-4840

남대영기념관 수지에니어그램

자기 이해와 잠재력 개발, 리더십 향상
가족수지, 커플수지, 소그룹 피정
일시: 4.9(토) 10:00~17:00
문의: 정이사야 수녀, (010)8682-4237

카리타스남구보금자리 입소자 모집

대상: 직업활동 가능한 성인지적장애인
위치: 대구시 남구 대명동-이천동 일대
문의: 710-7030

한국여기회 '여기애인' 원고 모집

주제: 봉사, 자선, 이웃사랑의 체험수기
분량: A4용지 2매 이내, 11P
제출: min8641@hanmail.net
마감: 4.20(수) / 소정의 원고료 드림

대구교구 운전기사사도회 회원 모집

자격: 개인택시(교구에 성실하게 봉사
하실 분 / 예비자 포함)

특전: 수 / 토 / 일 부제 적용
문의: 회장, (010)9116-2587

바니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이다.
일시: 3.31(목) 13:00 기도, 14:00 미사
장소: 대안성당

부활맞이 사순 9일 기도

기간: 4.4(월)~4.13(수)
시간: 10:00~21:3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월막피정의집)
문의: (010)9045-0191

부부 둘만의 힐링여행 대구ME주말

388차: 4.22(금)~24(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http://dgme.or.kr> 접속 후 신청가능

군중후원회 창립50주년 감사피정 및 미사

일시: 5.5(목) 13:00
장소: 주교좌 범어대성당
주례: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강사: 김웅열(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SPC에니어그램단계 개강 모집

일시: 4.5(화) 10:00~12:00
내용: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내적여정
교육기간: 주1회, 총8주, 16시간
장소: 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
신청: 254-2664 / (010)3228-3330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만철(바오로)
하오안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난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 서문시장점 010-6481-8848

힐데갈드 화장품
이 화장품은 수녀들이 친환경으로 재배한 허브로 직접 만듭니다
크림·로션·스킨·샴푸·금잔크림·세안비누
롯데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문의 0502-700-1140
010-5117-1160

코리아알트만
39년 전통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릴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053-743-4488
M. 010-3530-7467

이시아요양병원
대구시 동구 파계로6길 16(지모동)
(파군재 삼거리 좌회전 100m)
(053)983-7700
병원장 이동구 (마티아)

방역소독(24시 긴급출동)
청소, 에어컨·물탱크청소, 경비
(주)행복안세상
대표전화 053)524-1231
<http://www.hbdaegu.co.kr>
전순출(비비안나) 신원섭(바오로)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신경정신과 전문의/의학박사 대한수면의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

은진종합건설
리모델링
보일러, 수도누수, 전기누전
배관막힘, 지붕공사, 방수
페인트, 타일, 샷시, 목작업
정상진(그라시아노)
010-3526-7401